

사회

해남 옥천 쌀막걸리 1등 먹었다

어제 무안서 '전남대표 막걸리' 선발대회 전문가 블라인드테스트...12종 치열한 경쟁

남도의 넉넉한 인심과 여유가 담겨있는 막걸리. 어떤 막걸리가 전남을 대표할 수 있을까? 23일 오후 무안 전남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전남 대표 막걸리 선발대회'에서 해남 옥천주조장(대표 송우중)의 '쌀막걸리'가 1위를 차지했다. 옥천주조장 쌀막걸리는 맑은 색깔과 부드러운 목넘김 등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뒤를 잇는 양주향도가의 '대대표', 순천주조장사의 '나누우리'가 이었다.

막걸리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올해부터 막걸리로 출품대상을 제한했다. 3~4곳의 막걸리업체만이 참여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 생산업체 12곳이 참여해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이날 출품된 막걸리는 순천주조장사의 '나누우리'를 비롯해 ▲담양죽향도가의 '대대표' ▲장흥 안양주조장의 '햇쌀이 하늘수' ▲강진 병영주조장의 '실성동동주' ▲강진 도암주조장의 '뽕잎쌀막걸리' ▲해남 해양주조장의 '해장막걸리' ▲해남 옥천주조장의 '쌀막걸리'·'올금막걸리'·'고구마막걸리' ▲영암 삼호주조장의 '도갓집 햅쌀막걸리' ▲함평 농업회사법인(유)자희자양의 '자희양탁주' ▲영광 대미주조장의 '보리향탁주' 등으로 모두 전남에서 100% 생산된 쌀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옥천주조장은 이번 대회에 쌀막걸리와 올금막걸리, 고구마막걸리 등 3종류를 출품했으며, 이 중 쌀막걸리가 전남 최고 막걸리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전남도는 옥천주조장 막걸리를 비롯해 일상작으로 선정된 막걸리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주최의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기원 대표막걸리 선발전'에 전남 대표 막걸리로 추천하고 농업박람회 등에 특별전시해 집중 소개할 방침이다. '탁주 부문 대한민국'이기도 한 옥천주조장 대표 송우중(47·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씨는 "조부 때부터 3대째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쌀



23일 오후 전남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전남 대표 막걸리 선발대회'에 참가한 심사위원이 컵에 담긴 막걸리의 맛을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 노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위낙 실력이 쟁쟁한 업체들이 참여해 1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수상이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984년 옥천주조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옥천주조장 쌀막걸리의 특징은 햅쌀이 아닌 5년된 묵은쌀을 사용하며, 색이나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 알칼리화시킨다는 데 있다. 또 배양된 누룩 3가지를 섞어만 들어 맛의 균형을 이루고 쌀알 일부를 따로 배양해 사용함으로써 맑은 맛을 내는 것도 옥천

주조장 막걸리만의 자랑이다. 순천대 식품공학과 김응두 교수는 "출품작 모두가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는 등 전체적으로 나아졌다"며 "옥천주조장 쌀막걸리 등이 전통과 현대인의 입맛을 적절히 조합해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막걸리 6.4L를 생산하면 쌀 1kg 소비효과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쌀 소비가 늘어 농민 소득이 증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저울에 사람 매달려 살처분 소 무게 늘려

경찰, 보상금 부풀린 농민·수의사·공무원 등 29명 입건

부루셀라병에 걸린 도살처분 대상 소의 중량을 늘려 보상비를 부풀린 축산농민과 이를 도운 공무원·수의사 등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살처분 대상 부루셀라 소의 무게를 늘려 농민에게 보상비를 쟁겨주고 사례비를 받은 의혹을 조사(본보 4월 23일자 6면)해온 나주경찰은 23일 나주시 7급 공무원 김모(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를 도운 공익수의사 1명, 공수의사 3명과 보상비를 쟁긴 축산농민 24명도 입건했다. 부루셀라병 병 도살처분 보상비를

부풀리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을 준 축산농민과 이를 도운 공무원·수의사 등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축방역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루셀라병에 걸린 소 468마리의 중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있다. 부루셀라병에 걸리면 소의 무게를 달아 시세의 80%를 보상해 주는데, 농민들은 김씨와 짜고 이 무게를 부풀려 이 기간 받은 8억1700만원 가운데 25% 가량이 2억원에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무원

원과 함께 보상비를 평가하도록 한 수의사도 이를 묵인했고, 행정기관의 적발도 없었다. 이들은 부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매립하는 과정에 보상비를 산정하는 증거자료로 전자저울의 무게 표시 숫자를 사진으로 찍도록 돼 있는 점에 착안, 소와 함께 사람을 매달거나 아래에서 저울을 잡아당기는 방법 등으로 무게를 늘렸다. 이 같은 방법으로 보통 3년생 소의 무게가 500kg 안팎인데도 최고 800kg까지 부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무게측정 과정에 살처분 소와 함께 2~3명이 저울에 매달리는 수법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선진교통문화 가꿔요" 23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 선진교통문화 정착 범시민 대회'에 참가한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승범 광주지방경찰청장, 광주 유안초교 학생들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조교 학과카드로 수천여만원 '카드깡'

안마시술소 등 유흥비 탕진도... 경찰 수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지리학과 전(前) 조교가 유흥업소 등에서 학과카드로 수천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남대 노 학과 전 조교 박모(31)씨가 지난해 2007년~2008년까지 이 학과 조교로 근무하던 중 학과카드를 불법

전용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학과카드를 이용, 2600여만원을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활용)으로 현금화 하고 안마시술소·유흥주점 등에서 수십여차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매달 대학 측에서 지원해 준 학과 운영비(월 25만원)로 학과카드 사용대금을 일부 돌려막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과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로 복사 용지·필기 도구 등을 구입할 때 쓰는 지원금이다. 경찰은 카드사용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대학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특히 학과 카드 이외에 연구비 등 또 다른 학과 지원금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광주·전남 42개 초·중고 교장 공모

시도교육청 이달말 공고... 광주 12·전남 30개교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23일 "올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빈 광주 22곳, 전남 60곳 중 절반 가량이 12곳과 30곳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봉산, 치평 등 초등 8곳, 일신, 일동, 운남중 등 중학교 3곳, 고교는 상일여고 포함됐다. 전남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0곳, 고교는 순천남산, 동산여중(순천) 등 10곳, 나주고, 약산고, 남양고 등 고등학교 5곳 등이다. 교장 공모는 이달말 공고에 들어가 7일간 지원자 점수를 받은 뒤 학교운영위원회(1차)-교육청(2차) 심사를 거쳐 2배수 추천하고 교육감의 임용 제정을 받아 대통령이 임용한다. 양 시도 교육청은 "기존 교장 공모제와

달리 이번 지정 학교는 지역과 규모 등에서 선호학교가 상당수 포함돼 응모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미발령 교장이 적지 않는데다 임용전인 8월까지 자격연수를 마칠 예정인 자도 응모할 수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발령 대기중인 교장이 56명, 전남은 88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자격연수중인 교원은 광주 76명, 전남은 161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승진 예정자가 밀리거나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수원지법은 유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진(49)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경(36) 교선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되고, 직무 해태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7개 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유무죄 5대2로 유죄판결이 훨씬 우세하게 됐다. /연남뉴스

추락 링스헬기 진도해상 발견

지난 15일 진도군 조도면 동남쪽 14.5km 해상에서 추락한 해군 제3함대 소속 링스헬기 동체가 발견됐다. 3함대는 23일 "조도면 독거도 동남쪽 10km 부근 해저 37m 지점에서 소해함인 고장함양이 수중과파탐지기(SONAR)를 이용해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3함대는 수색 9일째인 이날 해안구조대(SSU) 등 잠수요원 42명을 동원, 물속에서 확인작업을 벌였다. 사고 헬기는 지난 15일 오후 8시58분 진도군 동남쪽 14.5km 해상에서 해상 순찰 중 추락, 기장인 권태하(32) 대위가 승진 제 발견했으나 홍승우(25) 중위, 임호수(33)·노수연(31) 중사 등 3명은 실종됐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0분 해질 19시 12분 달돋이 14시 37분 달지름 02시 50분

아빠, 봄나들이 가요~

일교차가 큰 가운데 전국이 맑겠다.

광주	맑음	4/19°C
목포	맑음	4/17°C
여수	맑음	6/19°C
완도	맑음	4/17°C
구례	맑음	2/20°C
해남	맑음	3/18°C
장흥	맑음	3/18°C
고흥	맑음	4/20°C
순천	맑음	5/19°C
영광	맑음	2/16°C
진도	맑음	4/17°C
전주	맑음	3/18°C
남원	맑음	0/17°C
육산도	맑음	7/13°C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민연락처 131 (광주지법기상청)

날짜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4/22	11/15	10/17	6/17	6/19	7/21

'스폰서 파문' 박기준 지검장 전격 사의 표명... 왜? "김용철처럼 매장"...'막말·협박' 국민분노에 부담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 주변에서는 박 지검장이 조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PD수첩에서 방송을 탄 막말과 생생한 녹취록이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그는 사실여부를 묻는

PD를 향해 막말과 함께 민·형사상에도 조치하겠다고 협박해 가까운 쪽언을 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박 지검장이 취재기자를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 검찰청자 정보(52)씨와 박 지검장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생생하게 방영되면서 박 지검장은 자신의 문제로 검찰의 처부가 드러난 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통화가 조작됐다고 변명했지만, 지난해 6월과 10월 정씨의 두 차례 통화에서 천성관씨의 검찰총장 내정소식에 자신의 향후 인사거취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정씨를 향해 "김용철처럼 매장된다"며 협박해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지검 홈페이지는 지난 21일에는 아예 접속 폭주로 다운됐다. /연남뉴스

폭로 정씨 자살기도

20여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건설업자 정보(52)씨가 23일 오후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부산지법 앞 법무법인 '부산'의 회의실에서 수면제로 추정되는 흰색 알약을 다량 복용했다. 정씨는 "구속돼도 진실을 밝히겠다. 접대한 검사 10여명을 추가로 밝히겠다"며 주위 사람들을 물린 후 약을 먹었다. 정씨는 인근 대동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고 30분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연남뉴스

남의 가게서 술마신다고 먹살

○-자신의 호프 집에서 일하는 호프업원이 다른 호프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황모(31·남구 월산동)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W주점에서 자신의 호프집 종업원 공모(19·나주시 왕곡면)군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먹살을 잡았다는 것.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군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금 4만원을 가불해 왔는데 옆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